

# 결국 조직력... 감동 없는 국민경선

민주 전남 경선 전·현의원, 단체장 출신 승리

모바일 혁명도 말 뿐... 무소속 거센 도전 예고

단 한 곳 고흥·보성에서의 이변이 이날 경선의 백미였다. 나머지 지역은 당초 예상을 빚나가지 않았다.

14일 치러진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남지역(7곳) 경선에서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 후보가 대부분 승리했다. 고흥·보성에서만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정치신인이 전직 국회의원의 벽을 넘었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도입한 국민경선이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 채 실패한 시도로 결론났다. 모바일 혁명은 당 지도부의 말 잔치였을 뿐이었고 많은 부작용과 생계기반 남겼다.

이처럼 민주당 공천 특히 '안방'인 호남 공천마저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이 승부 좌우=이날 실시된 전남지역 경선에서도 조직력이 승부를 갈랐다. 우선, 김성근(여수갑)·이낙연(담양·장성·영광·함평)·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 등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도전해 모두 승리했다. 현역 의원의 막강한 조직력 앞에 김점유·이석형·박광은 예비후보 등

정치신인과 전직 기초단체장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또 현역 의원이 배제된 곳에서는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기초단체장이 모두 승리했다. 우선 나주·화순에서 배기운 전 의원이 정치신인에 신승했다. 순천·곡성에서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 장흥·영암·강진에서는 황주홍 전 강진군수가 각각 승리하며 공천장을 받게 됐다. 이들은 현역 의원 못지 않은 조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장성민 전 의원만이 현역인 박상천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승남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 승리의 일등공신도 조직이었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졸군 열세를 보였으나 박 의원의 조직과 현직 군수의 직간접 지원을 받아 이를 극복했다. 유일한 여성 경선후보였던 국령에 후보(장흥·영암·강진)에 부여된 여성 가산점 20%도 전직 3선 군수의 막강한 조직력의 벽에 막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광주·전남 현역 교체율 44.4%=민주당은 이날까지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19개 중 15곳(광주 5곳, 전남 10곳)에서 공천자를 결정했다. 공천자를 못 낸 4곳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무공천지역이 된



김성근



이낙연



김영록



노관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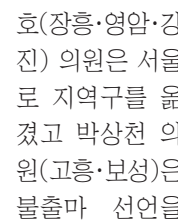
배기운



황주홍



김승남



조영택

광주 동구와, 공천방식 결정이 미뤄졌던 서갑, 야권연대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서을, 현재 모바일 경선이 진행 중인 무안·신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18명의 현역 의원 중 8명이 공천 배제 또는 교체돼 교체율이 44.4%에 달했다. 광주에선 8명의 현역 의원 중 박주산(동구)·조영택(서갑)·김영진(서을)·김재균(북을) 의원 등 4명이 공천에서 배제됐으며, 전남에서는 10명의 현역 의원 중 김효석(담양·곡성·구례, 선거구 폐지)·유신

호(장흥·영암·강진) 의원은 서울로 지역구를 옮겼고 박상천 의원(고흥·보성)은 불출마 선언을 했으며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컷오프되는 등 4명의 의원이 현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오는 16일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현역 의원의 탈락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15명의 공천자 중 정치신인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참신한 인물의 등장을 바랐던 국민의 여론을 민주당이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공천 결과에 대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 이름은 없어요?” 14일 나주시 송월동 나주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필리핀·미얀마 출신 다문화가정 주부 5명이 선거인단 명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걸음 돌리고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불법단속 선관위원 카메라 부수고 폭행

## 동원의혹 관광버스 참관인 막자 돌아가

현장투표 불법법 난무

14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전남지역 4·11 총선 후보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현장투표가 선거인단 차량 동원문제를 둘러싸고 참관인들끼리 마찰을 빚는가 하면 이를 단속하는 선관위 직원이 폭행당하는 등 불·탈법으로 얼룩졌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영광군 영광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민주통합당 경선 투표과정 중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영광 선관위 이모(55)지도계장이 A씨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이 계장은 이날 영광군 모 지역에서 봉고차량을 이용해 선거인단을 투표장으로 수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자로 보이는 A씨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현장 상황을 찍은 이 계장의 카메라를 빼앗는 과정에서 카메라 일부를 부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나다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를 영광에 보내 차량 수송경위와 수송 인원, 지시자나 공모자 여부를 파악한 뒤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7시에는 나주선관위 건물 앞에 대규모 선거인단 동원 의혹이 있는 관광버스가 등장해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투표장소에 도착한 관광버스는 예비후보 참관인들이 가로막자 승객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중두

누구 하나 떨어져야 끝날까?!

## 민주 광주 서구갑 후보 경선

## 박혜자·장하진 양자 대결로

최고위 최종 의결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갑 총선 후보 경선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박혜자·장하진 예비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14일 밤 늦게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서구 갑 후보 선정과 관련, 공심위가 제시한 원안인 박혜자·장하진 예비후보 간의 국민경선을 실시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통합당 공심위는 지난 5일 광주지역 서구 갑 후보 컷-오프(압축)를 통해 박혜자, 장하진 예비후보를 경선 주자로 결정했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갑석 예비 후보의 경선 배제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후보 경선이 보류됐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공심위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공심위는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재개했으나 박혜자·장하진 양자 구도로

경선을 치르는 원안을 다시 제시, 14일 밤 최고위가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송갑석 예비 후보의 경선 탈락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다 경선 논의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특정후보 지원설' 등이 확산돼 오히려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 대한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당장, 서구 갑은 민주통합당 후보와 새누리당 성용재 후보, 통합진보당 정호 후보, 무소속의 조영택, 송갑석, 정용화 후보 등 무려 6명의 주자가 뛰는 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투표함을 열어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무소속 후보들이 강력함에도 다자구도로 선거가 전개되면서 선거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4일 영광군 영광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현장투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선관위 간부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14일 현장투표가 진행된 나주시선관위 앞에 선거인단을 태운 것으로 보인 대형버스가 등장해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 제공>

#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열(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변열이 생기며 간혹 몽유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심당허결(心膽虛怯) 몸이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형(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금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서 볼 수 있다.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중상이 심한 경우는 대증치료를 통해 신체중상을 우선 개선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환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케비람을, 음허화열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안소, 심당허결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담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임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성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카센터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증-9062호

경희한의원

침 · 뜸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